

第142回 第2次 定例会
市政質問・答辯

大田廣域市議會

沈 鉉 榮 議員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꿈의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하여...”

大德區 第1選舉區

질 문 목 록

1. 대전1·2산업단지 이전 및 신규공단조성 관련 --- 63
2. 경륜장 조성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 관련 ----- 70
3. 신행정수도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 관련 ----- 78
4. 학교정수기 수질 및 사용 관련 ----- 87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시장, 교육감, 관계국장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沈鉉榮 議員 대덕구 제1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심현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2회 제2차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예산심의가 살기좋은
대전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염홍철시장님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권은 물론 특히 대전권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정수도건설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허탈감속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경제마저 바닥인줄 모르고 떨어져 충청권은 물론 대전시민의 희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의회에 대해 잠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이, 생산적이어야 할 우리 의회가 지금 시민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소모적인 갈등과 비생산적인 힘겨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만약 후자에 해당된다면 누가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한단 말입니까?

이제 좀더 성숙한 자세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자아를 다스려 가며 내 탓으로 돌리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살기좋은 대전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시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시정질문으로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알가알부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이므로 스스로 의회기능과 위상을 살리는데 뜻과 지혜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에 대하여, 대전의 첫 인상을 경제적측면에서 보면 소비도시이지 생산도시가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많습니다.

물론 보는 이의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공단부족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공단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며 또한 공단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걸림돌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을 보면 200만평의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새로운 공단조성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기존 1·2공단은 날이 갈수록 가동률과 생산률이 떨어지는가 하면 도심 한복판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에서 1·2공단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시정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沈鉉榮 議員 대전의 경제, 즉 생산성은 광역시 중 어느 정도
입니까, 대전의 1인당 총생산량이라든가?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경제과학국장 한의현입니다.

2002년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내 총생산은 14조 9,000억원으로
전국 총생산에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중 5위로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또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지역
총생산액이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沈鉉榮 議員 앞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추가 공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최근 신규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특화산업단지는 R&D 특구지정 및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확대 등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당 30 내지
50만평 규모로 총 200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200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을 입주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국장님, 그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예, 늦어진 이유는 건교부에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의 확정 지연이 그 주요 요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沈鉉榮 議員 지역공단의 부족현상은 피부로 느끼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예.

◆ 沈鉉榮 議員 그런데 왜 지금까지 1·2·3·4 공단의 후속 대책을 빨리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뭘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그동안은 3·4산업단지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R&D 특구지정과 더불어 신규 산업용지를 조성하려고 최근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공단의 필요성과 늦어진 데 대해서 통감을 하고 계십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예.

◆ 沈鉉榮 議員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것은 늦은 이유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늦어진 게 사실이지요?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예, 늦어졌습니다.

◆ 沈鉉榮 議員 앞으로 조성되는 공단이 대전의 원가가 비싸서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원가는 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국장께서는 예측을 하십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 또 설계비 또 보상비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또 개발 대상지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원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북 청원 오창단지가 44만원 또 충남 천안 3단지는 한 50만원선에 분양된 사례가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할 예정지의 단가가 그 타 도시에 비해서 비쌀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가 한 45만원에서 55만원선 또 2단계가 65만원에서 75만원선이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니까 비싼 분양가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그러나 타 도시는 변두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에 약간 비싸지만 대전 지역을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앞으로 조성되는 공단은 변두리에, 변두리라고
해봐야 대전 시내 아닙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예.

◆ 沈鉉榮 議員싼 곳에 조성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경쟁
력이 없이 공단 조성 원가가 높아지면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당 단가가 저렴한 대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단지조성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沈鉉榮 議員 공단 입주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2007년 말로
예상을 합니다.

◆ 沈鉉榮 議員 여하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沈鉉榮 議員 조성원가를 좀 싸게 하여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경제과학국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韓義鉉 經濟科學局長 감사합니다.

◆ 沈鉉榮 議員 대전은 지리적으로 삼남의 교통 요충지요, 국토의 중심지로서 생산도시의 여건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단부재 현상이며, 이로 인하여 소비도시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만회하는 길은 소비보다 생산이 우선되는 신규 공단조성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겨우 R&D 특구지정을 바라보는 정도의 계획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1·2공단 이전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추가공단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은 이를 감안하여 대전경제 확충을 위해 신규 공단을 하루 빨리 조성하여 대전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은 선진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측면과 체육적 측면 즉,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문화체육국이 담당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륜장 건설의 한 단면을 본다면 레저스포츠 측면 보다는 사행성의 비중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의 현황을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이들의 중독증세는 참여자의 약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선진국의 평균 중독률은 2.3%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국민의 중독률이 아주 대단합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국민소득은 1만불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불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칭 노름이란, 이 나라의 뿌리 깊은 불신풍조와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우리 만큼, 우리 국민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름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따도 잃고, 잃어도 잃는 것이 노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개평을 뜯는 사람만 재미를 보는 것이 노름판이라면,

경륜장은 허가를 받은 노름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세수의 증대가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잃은 사람의 호주머니 돈 즉, 사행성을 부추겨 세수증대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것이 좋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세수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돈을 잃는 곳에 세금을 낸다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수가 있는 것보다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륜장 총 건설비는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요?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경륜장 건설비용은 1,2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토지매입분 포함입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예, 그렇습니다.

◆ 沈鉉榮 議員 연 매출액과 1인당 평균 구매액의 예상치는
얼마나 되는지요?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연간 총 매출액은 개장 후의 첫 해에는 약 3,000억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구매액 예상치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평균 배팅액이 33만 2,000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정당첨금 23만 2,000원을 제외하면 평균 10만원 정도 수준의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배팅액이 152만 7,000원이 되기 때문에 성격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면 총 매출액을 모든 경기를 포함하고 몇 퍼센트의 이익, 즉 세수가 떨어진다고 봅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고객당첨금이 70%가 되고, 레저세가 10%, 교육세가 6%, 그리고 농특세가 2%, 발매수익금이 12%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지방체육기금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 沈鉉榮 議員 우리 시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이 됩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레저세 10%는 전액 시가 수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제외한 발매 수익금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60%는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는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에 교육재정으로 주게 되는 것인데 교육세가 6% 정도 됩니다.

◆ 沈鉉榮 議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공제를 하고 우리 시의 순수익금이 세수가 얼마며,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한 20% 정도 됩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면 3,000억원의 20%면 얼마입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600억원 정도 됩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면 첫 해부터 600억원정도 수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예, 3,000억원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 沈鉉榮 議員 모든 것을 공제하고 그렇게 됩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예.

◆ 沈鉉榮 議員 그리고 경륜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정적으로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대화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의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장이라고 하는 데는 중독자가 9%대에 가까운 도박성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오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나라 도박 경험 비율을 보면 화투와 카드가 75%나 됩니다.

◆ 沈鉉榮 議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예, 우리 시의 경륜장은 종합체육 시설도 함께 만들어서 레저스포츠 시설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박성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 沈鉉榮 議員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요.

서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막대한 자금을 비생산적인 투자보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총 투자를 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경륜장 건설은 비생산적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 중에서 상당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방세수를 높이고 복지 재정이나 체육진흥의 재정으로 쓸 수 있고.

◆ 沈鉉榮 議員 그 분야는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서민층과 이 중독자가 상당히 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것 아시지요?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저희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갈 것입니다.

◆ 沈鉉榮 議員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떼서 줄랍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물론 주는 것이 70%가 됩니다.

◆ 沈鉉榮 議員 아니, 70%지만 30%를 잃는 사람이 아주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저희가 세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부분 또는 서민을 위한 복지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구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대표이신 이분들에게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여론 수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손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시에서 어떤 적절한 대처가 있습니까?

◆ 朴憲晤 文化體育局長 문화관광부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나 부산이나 다른 경륜장의 허가 신청을 할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일치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끝까지 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 沈鉉榮 議員 국장님,

그런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면서요?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朴憲晔 文化體育局長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도 있고,...

◆ 沈鉉榮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리고,

본 의원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자가 56%이고,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빚만 있는 자의 이용률도 32.3%에 달한다고 하니,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카지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150만원 미만인 2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150만원에서 250만원 수입이 27.9%로 다음 순이라고 하니 대전 경륜장의 이용객 수준도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수증대와 레저스포츠 증진 등 좋은 점도 많습시다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급선무이며,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진정 대전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은 대전시민과 충청권의 문제만은 아니며, 전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현상의 지방분산 등 이 나라 미래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 백년대계의 어두운 그림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도 건국 이래 충청인의 자존심을 상실한 최대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인들이 언제, 누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달라고 건의한 바,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충청인들의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약(空約)이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충청인들을 또 현혹하여 민심을 거두어 들였던 바, 싹쓸이 정국으로 몰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충청인들에게 상처투성이만 남겨 놓은 채 충청인들의 민심은 정부나 여당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16대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외의 막강한 인구를 의식하여 당론이 변질된 이중잣대로 충청인들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명든 가슴을 다시 한번 내리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정당이 과연 충청인을 위한 정당입니까?

또한 충청인의 뿌리로 태동했다는 자민련은 어떻습니까?

충청인의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에 걸려 거동조차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당정치로 인해서 충청인들의 민생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없는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로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희망도 좌절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충청인들을 누가 달래겠습니까?

민선시장이신 대전시장님께서 이러한 민의를 듣고 계시는지요?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충청권의 단결과 단체장님들께서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이 열화와 같은 민생의 목소리를 당인의 의리로서 혹시 묵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충청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충청인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에 앞장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금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모색이라는 여야의 행태를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회복불능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청인들을 축구공처럼 필요에 따라서 이리차고 저리차고 하는 기존 정치세력에 회의를 느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충청권, 특히 대전의 민심을 어느 정도나 우리 시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 廉弘喆 市長 심현영의원님이 이해하듯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아주 나빠서 서민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충청인들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고 불신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沈鉉榮 議員 민선시장님께서도 정당 제도권의 한 분이시지요?

◆ 廉弘喆 市長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면 요즘 여야의 신행정수도에 대한 행태를 보시고 느낀 점이 계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廉弘喆 市長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沈鉉榮 議員 충청인들이 시장님을 새로운 정치질서의 중심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 시장님은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하실는지 궁금합니다.

◆ 廉弘喆 市長 저는 지금 제가 맡은 바 행정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 沈鉉榮 議員 그리고 향간에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우리 대전은 물론이고 충청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신당 출현이 가능하다, 민선 3개 시·도지사들이 충청인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열화와 같은 소리를 제가 직접도 많이 듣습니다.

신당 출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廉弘喆 市長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항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의 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러나 우리 민선시장님께서서는 지역을 대변하는 민선시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민의 민의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廉弘喆 市長 현재의 정당을 통해서 민의가 수렴되고 건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沈鉉榮 議員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 廉弘喆 市長 저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정책목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정부 즉, 참여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균형 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 문제를 풀지 않고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대통령, 국무총리, 당의장이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이후 대전시의 대처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廉弘喆 市長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당에 대한 당인의 의리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는 아마 대전시민 전체 중에서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지역의 뜻을 전하고 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3개 시·도가 뭉쳐서 각 지역을 분담해서 각 단체 또 물론 거기에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학술행사가 분담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런데 충청도의 행정 최고책임자의 노력은 가속이 붙었는데 대전시가 모도시로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일반여론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廉弘喆 市長 보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엣그제는 시민사회단체 또 여기 의회협의회까지 포함해서 범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겠지요,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한 1주일 전후 해서 3개 시·도가 연합적으로 범충청권연대를 발족하면 더 가속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공주에서 직접 그런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주장과 우리 배후도시로서 대전시민들의 주장이 목표와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연기·공주 그쪽 지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沈鉉榮 議員 정말 요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과 이런 시정질문을 하여 걱정하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자부심을 갖는데 시장님은 이런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廉弘喆 市長 의원님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沈鉉榮 議員 저도 시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오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廉弘喆 市長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안중기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나를 빼놓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안중기 의원님 말씀은 대전에 그것을 건립하는 것은 아주 찬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치한 것도 높이 평가 한다 다만 위치가 엑스포 과학공원이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현재 한 17만평쯤 되는데 그 중에 한 4만평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활용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활용이 안 되고 일부가 남습니다.

그 남는 자리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첨단문화산업 단지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라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첨단문화산업을 관장하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沈鉉榮 議員 할 말이 많습시다만, 시간관계상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직접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돗물의 불신으로 인해서 정수기 시설을 꽤 많이 했지요?

◆ 洪盛杓 教育監 많이 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동안 정수기로 인해서 들어간, 관리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洪盛杓 教育監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시다만 초기는 정수기를 상당 부분 보급을 했다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沈鉉榮 議員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로만 1년에 4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막대한 돈 입니다, 그렇지요?

◆ 洪盛杓 敎育監 그렇습니다.

◆ 沈鉉榮 議員 저도 대전시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돗물을 불신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敎育청에서는 우리 대전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敎育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洪盛杓 敎育監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대단히 억울한 말씀이고,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심의원님께서 수돗물을 직접 드신다는 건 존경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도 인식하고요, 그것이 100%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뢰성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지 敎育청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회복 가능 문제는 물론, 학교에서도 저희들 敎育을 통해서 또는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학교하고 敎育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沈鉉榮 議員 나는 그것이 교육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데, 좋은 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불신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의 입장에서…….

◆ 洪盛杓 敎育監 심의원님, 논쟁하자는 말씀은 아니실테고요, 한때 수돗물을 직접 먹겠다고 발표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먹는 물을 한 병씩 전부 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우수하다, 그냥 먹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 정수기에도 직접 수돗물을 연결해서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沈鉉榮 議員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말씀과,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수돗물은 100가지 이상을 검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洪盛杓 敎育監 저도 알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그런데 하물며…….

◆ 洪盛杓 敎育監 그러니까 물리적인 폐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沈鉉榮 議員 정수기를 계속 쓸 것입니까?

◆ 洪盛杓 敎育監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정수기를 계속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 洪盛杓 敎育監 계속 쓴다는 말씀은 새물품은 계속 보급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 沈鉉榮 議員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쓰냐?

◆ 洪盛杓 敎育監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써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쓰면 안 되고요.

◆ 沈鉉榮 議員 1년에 4억 3,600만원 들어갑니다.

◆ 洪盛杓 敎育監 관리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상당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 沈鉉榮 議員 내년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0만 PET를 생산합니다.

◆ 洪盛杓 敎育監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 沈鉉榮 議員 부모님들이 불신해 가지고 정수기를 쓴다는 것인가요?

◆ 洪盛杓 敎育監 그렇습니다.

아이들 계속 물통 들고 오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 沈鉉榮 議員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을 그냥 보내면 될 것으로 보는데요.

◆ 洪盛杓 敎育監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야 100% 믿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안 해주고 학교에 물통 싸서 보내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沈鉉榮 議員 교육감님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신뢰하도록 만들어야지요.

◆ 洪盛杓 教育監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고요.

◆ 沈鉉榮 議員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실·국장님, 홍성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 새로운 대전건설
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밝고 명랑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아갑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미래가 보입니다.

대전은 꿈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대전 건설, 우리 모두가 보고 싶은
대전 건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대전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대전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들의 발자취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가꾸어 나아갑시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회도 집행기관도 정당도 이념도 모두가
다같이 합심하여 일하는 의회, 일하는 집행기관, 일하는 교육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